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 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갑용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교수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on their Beliefs about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Kabyong Park
Professor, English Department,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천안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07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외국어 학습신념 및 학습 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또한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의지가 필요한 외국어 능력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학생, 자기결정성, 외국어 학습신념, 학습 성과, 온라인 교육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ntends to examine how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affects their beliefs in and achievement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current pandemic times. The data under discussion was collected from a survey questionnaire conducted to a group of 107 students attending at a four-year university in Cheonan. With the software SPSS Version 21.0, a set of statistical methods were employed: (i) descriptive statistics along with (ii) correlation analysis and (iii) regression analysis. The current analysis identifi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both beliefs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which means that the former exert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tter.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educators arrange strategic plans that can enhance collegians' self-determination for their better performanc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Key Words :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Belief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earning outcomes, Online educ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Namseou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abyong Park(kpark@nsu.ac..kr)

Received January 27,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4,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현재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팬데믹이라는 시기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강좌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고 결국 대학과 교수자, 교수자와 교수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대화는 급감한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몇 가지 이유로 오히려 비대면 온라인 환경 하에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1,2]. 첫째,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줄어들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동원한 열린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핵심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은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을 돕기 위하여 상담강화와 취업역량구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다양한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은 경제, 직업가치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이루기 위한 실재적 준비행동은 대학생들에게 큰 과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재적 진로 준비행동에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과정에는 자신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실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결정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4].

자기결정성은, 문자 그대로, 어떤 외부요인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의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5,6]. 즉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독립을 준비하며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이는 자신의 대학생활 동안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대학생이라면 취업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외국어능력과 대학에서 이루어야 할 학습 성과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성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자기결정성은 '자기'라는 개념에 근거한 내재동기가 필수적이다. 이를 향상시키려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7].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이 성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자기결정성, 신념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향상 되어 우수한 학습성과의 교육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결정성

대학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 비교과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취업 준비에 유리한 대학 생활 경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대학교육의 성과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많다. 전문가의 길을 밟는 전공트랙을 가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포함한 교과활동이나 동아리 혹은 학생회 등 비교과활동 모두 적극적이지 않고, 교수와의 상호작용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보고되고 있다[4,5].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내재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인 자기결정성은 동기(motiva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질이다. 이 자질(역량)은 행위로 발현되는 원천인데, 유발시키는 방향에 근거하여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분류한다. 내적 동기는 한 개인이 내부에 독립적으로 갖는 동기로 예를 들면 관심, 즐거움 등이고, 반면에 외적 동기는 행위를 일으키는 보상 같은 외부적 요인을 지칭한다[5-7].

Ryan과 Connell(1989)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 선택에 있어 자율성의 정도가 자기결정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8], 외적 요소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설명하였다[9]. 자기결정성은 앞에서 전술하였듯이 내재적인 동기에 주요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환경요소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자주성, 유능성, 유대관계성 등의 역량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에게는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0].

2.2 외국어 학습신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비롯하여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기 중에 학점 이수를

위한 수업과 이에 따른 각 교과와 시험 및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개인의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orwitz(1988)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신념이라고 보고,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기대치, 열정, 학습효과,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었다[11].

Wenden(1987)은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신념은 학습전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수의 연구가 외국어 학습신념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2,13]. 따라서 외국어 학습신념은 외국어 외에도 전반적인 학습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외국어 학습신념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학습의 어려움, 개인적인 소질, 외국어 학습의 본질, 의사 전달 전략, 동기와 기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은 외국어에 대하여 신념을 갖고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학습 성과

학습 성과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학생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목표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학교육에서의 학습 성과는 전체적인 사회의 경향, 대학의 교육목표, 철학,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몇 가지 학습 성과를 통해 표준화하여 확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게도 대학생의 학습성과는 일정기관동안 받은 고등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결과물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대학의 학습성과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달성해야할 핵심역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최정운 이병식, 2009).

그러므로 학습 성과를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역량으로 보던 시각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최근에는 그 얻은 지식과 역량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즉, 비판적 분석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관련된 지식을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 성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생의 학습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5,16].

예를 들어, 인지적 역량은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포함

한다. 학생의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쓰기·읽기·말하기 등 언어능력, 창의적·분석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외국어구사력 등이다. 이에 반해, 비인지적 역량은 팀워크 및 협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정체성 파악, 다문화 이해 능력, 도덕성·윤리관·공동체 의식, 자기 관리 능력, 시간 관리 능력등을 포함한다[17]. 따라서 학습 성과의 범위는 매우 그 영역이 넓지만 자기결정성과 외국어 학습신념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도모하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N대학교의 10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외국어강좌를 중심으로 교양수업을 수강한 107명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2명(57.9%), 여학생이 45명(42.1%)이었으며 2,3,4, 학년을 중심으로 상경계열 41명(38.4%), 공학계열 30(28.0%), 예체능계열 10명(9.3%), 복지계열 26명(24.3%)로 참여하였다.

3.2 연구척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로는 자기결정성과 외국어학습신념 및 학습 성과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자기결정성

본 척도는 박명신(2015)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으며 총 15문항이다[17]. 자기결정성의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자율성(6문항)과 유능성(3문항) 그리고 관계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다고 해석되며 Cronbach's α 계수로 전체 신뢰도는 .770으로 나타났다.

3.2.2 외국어 학습신념

본 연구에서는 1987년 Horwitz가 총 34문항으로 개발한 언어학습신념 검사(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BALLI)) 중에서 박기표(1995)가 약간 수정하여 한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사용한 총 33문항을 적용하였다[11-18]. 본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영어학습의 어려움(6문항), 영어 학습에 적합한 적성(9문항), 영어 학습의 본질(6문항), 영어 학습 및 의사 전달 전략(8문항),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기대(4문항) 등에 관한 신념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외국어 학습신념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61이다.

3.2.3 학습성과

본 척도는 남혜선(2017)이 본인이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이는 총 1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인지적 역량(7문항)과 비인지적 역량(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는 높은 학습 성과를 나타내며 Cronbach's α 계수로 전체 신뢰도는 .688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먼저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구한 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된 변수들의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영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기술통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자기결정성,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자기결정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M=2.86(SD= .430)이며 외국어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Factors

Factor	subfactors	M	SD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	2.86	.430
	autonomy	2.85	.542
	competence	2.64	.602
	relatedness	2.99	.477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3.11	.400
	difficulty of English learning	3.08	.505
	English learning aptitude	3.20	.419
	nature of English learning	2.80	.486
	learning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3.06	.537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3.47	.491
learning outcomes	achievement	2.89	.377
	cognitive competence	2.99	.357
	non-cognitive competence	1.39	.218

학습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M=3.11(SD=.400)이다. 또한 학습 성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M=2.89(SD=.377)로 나타났다.

4.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자기결정성,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성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결정성은 외국어 학습신념($r=.608, p<.01$), 학습 성과 ($.719,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r=.608, p<.01$)와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나와 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self-determination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learning outcomes
self-Determination	1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579**	1	
learning outcomes	.719**	.608**	1

$p<.01$ **.

4.3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하여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4.3.1 자기결정성과 외국어학습신념과의 회귀분석

Table 3에 의하면 자기결정성은 외국어학습신념에 대하여 F값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어 학습신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561	.215		7.271	.000
self-determination	.540	.074	.579	7.277***	.000

4.3.2 자기결정성과 학습 성과와의 회귀분석

Table 4에 의하면 자기결정성은 외국어학습신념에 대하여 F값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했으며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어 학습신념도 향상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able 4.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Learning Outcom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earning outcomes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082	.172		6.276***	.000
self-determination	.630	.060	.719	10.586***	.000
R ² (adjusted R ²)				.516(.512)	
F				112.053***	

** p<.01, *** p<.001

4.3.3 자기결정성과 학습 성과와의 회귀분석

Table 5에 의하면 외국어학습신념은 학습성과와 F값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며 이는 외국어학습신념이 높아질수록 학습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Effect of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on Learning Outcom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earning Outcomes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108	.228		4.854***	.000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573	.073	.608	7.852***	.000
R ² (adjusted R ²)				.370(.364)	
F				61.653***	

** p<.01,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은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어 학습신념 또한 학습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글로벌 인재의 필수요소로 외국어 능력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역량강화의 목표를 위해 자기 결정성 향상을 위한 조력적인 교육과 프로그램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어학습신념이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지 논의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추후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W. H. Choi & Y. C. Jun. (2020). Case Review of Un-tact Online Courses Based on Video Recording vs. Synchronous Video Conferencing. *Journal of Field-based Lesson Studies*, 1(2), 1-28.

[2] S. H. Kwon, J. Lee, S. Y. Han & S. H. Bhang. (2012). A Study on Utilization of e-learning in General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Focus on Contents Sharing among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9-32.

[3] H. R. Lee, S. M. Kim, M. S. Chen & S. K. Choi. (2008).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4), 59-80.

- [4] M. S. Park & S. H. Han.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Creativity and Self-Determin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Courses from Lifelong Educato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6), 337-349.
- [5] E. L. Deci & R. M. Ryan.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6] K. M. Kim. (2012).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f Poor Childre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7] H. E. Oh, I. S. Choi & C. S. Jung.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Grit on Their Self-determination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 258-267.
- [8] R. M. Ryan & J. P. Connel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9] S. J. Kim. (2009).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10] R. M. Ryan & E. L. Deci.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11] E. K. Horwitz. (1987). Survey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A. L.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rentice Hall, London.
- [12] A. Wenden. (1987). How to be a Successful Language Learner: Insights and Prescriptions form L2 learners. In A. Wenden & J. Rubin(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13] H. S. Nam.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College Educati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Seoul, Korea.
- [14] R. J. Shavelson. (2010). *Measuring College Learning Responsibly: Accountability in a New Er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15] M. W. Seo. (2003). The Logic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and its Applica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o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6(2), 43-64.
- [16] G. P. Park. (1995). Relationships among Beliefs, Learning Strategies Use, and L2 Proficiency. *English Teaching*, 50(2), 301-319.

박 갑 용(Kabyong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문학사)
 · 1992년 5월 :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언어학박사)
 · 1994년 8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교수

· 관심분야 : 언어학, 구문론, 형태론, 영어교육, 영어 학습, 온라인 강의 등

· E-Mail : kpark@nsu.ac.kr